

‘악취 개선’ 약속 팽개친 5개 업체 여전히 악취 진동

2년전 ‘자발적 협약’ 하남산단 10개 업체 보니

3차례 위반 업체 광주·전남 첫 ‘신고대상 시설’ 지정 광주시·광산구 감독 방관...주민들 “조례 제정 시급”

광주지역 기업들이 악취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 시민들과 했던 약속을 팽개쳤다. 이틀 기업들이 조례로 강제화하는 대신, 악취 감소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취지로 광주, 광산구와 ‘악취개선 자발적 협약’을 체결했음에도, 악취를 줄이기 위한 적극적인 활동을 하지 않고 있어서다.

광주시에 당시 해당 기업들에 대한 특혜 논란이 일자 악취 감소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경우 조례 제정에 나설 것이라는 방침을 지키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시민을 상대로 한 ‘공약(公約)’이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15일 광주시 광산구에 따르면 지난 2013년 2월 광주시 등과 ‘악취개선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하남 산단 10개 사업장 중 5곳이 협약 이후 2년이 지나도록 협약 기준을 지키지 않는 업체, 악취 배출량을 줄이지 않고 있다.

이들 기업은 지난 2013년 광주시의회가 지역민들의 악취 민원을 고려해 악취배출 허용 기준을 정한 조례를 제정하겠다고 나서자 “자발적으로 줄일테니 조례 제정을 유보해달라”며 읍소했다.

해당 기업들은 10만명에 이르는 수만·하남지구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시의회 의 조례 제정과 관련, “협약을 맺은 첫 해에는 법적 기준치의 50%, 2년까지 70% 줄일테니 조례로 강제하지 말고 시간을 달라”며 지역 경제 위축 우려 등을 제기하며 광주시와 시의회에 호소했다.

그후 2년이 지났지만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다.

광주시 광산구는 지난해 12월과 지난 달, 두 차례에 걸쳐 해당 기업들의 악취배출 규도를 파악한 결과, 기아자동차(주)하남주조공장, 화천기공(주)제2공장, 현대비앤지스틸(주), (주)캡스, (주)정우화학 등 5곳이

협약 기준치 초과 배출 5개 업체

- 기아자동차(주)하남주조공장
- 화천기공(주)제2공장
- 현대비앤지스틸(주)
- (주)캡스
- (주)정우화학

오염물질을 초과 배출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들 기업 모두 협약 기준(500회석배수)이 넘는 악취가 측정됐다. 광산구 설명으로, 악취방지법 기준치(1000회석배수)를 3배를 초과한 기업도 적발됐다. 3000 회석배수는 무취 공기로 3000배 희석해야 냄새가 나지 않는다는 얘기다.

(주)정우화학의 경우 악취방지법 기준을 3차례나 위반하는 등 오염물질 초과 배출 빈도가 잦아 광주시는 급기야 해당 기업에 대해 광주·전남지역에서 최초로 ‘신고대상 악취배출시설’로 지정·고시한다는 계획을 내놓기도 했다. ‘신고대상 악취배출 시설’로 지정되는 사례는 극히 이례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기아자동차(주)하남주조공장, 화천기공(주)제2공장, 현대비앤지스틸(주)는 법적 기준치를 충족했지만 협약에 따라 약속된 기준치를 넘어선 악취물질을 배출했다. 하지만 지역민들 사이에서는 해당 기업들이 자발적 협약을 준수하기는 커녕, 빈번하게 오염 물질을 초과해 배출하는데도 광주시와 광산구가 선제적 조치에 나서지 않고 있다며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당장, 광주시와 시의회가 시민 반발에도 불구하고, 2년 전 기업 요청을 받아들여 조례 제정을 미루고 협약을 체결하면서 밝혔던 “2년 이내 악취 감소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경우 그때 조례를 제정하면 된다”는 약속을 저버렸다고 비판하고 있다.

하남산단 기업들이 협약을 비롯, 악취방지법 기준치마저 위반하는데도, 정기적으로 매월 악취 오염도 검사를 하거나 시설 개선 여부 등을 촉구하지 않는 등 감독·규제에 나서지 않고 있다며 시선도 굽지 않다.

광주시 관계자는 “해당 기업들이 모든 협약 내용을 지키지 않고 있는 게 아니다”면서 “협약에 따라 악취를 줄이기 위해 시설 투자를 한 기업들도 있다”고 했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악취란

악취는 아세트알데하이드, 톨루엔, 자일렌 등 인체에 유해한 기체물질로 사람의 후각을 자극해 불쾌감을 주는 냄새를 말한다. 지정악취물질은 악취의 원인이 되는 물질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한 22개의 물질이며, 복합악취는 두 가지 이상의 악취물질이 함께 작용해 사람의 후각을 자극해 불쾌감을 주는 냄새다.

▲단속과 검사는

악취 민원이 발생한 사업장 배출구나 부지 경계에서 진공 상태의 비닐 팩에 모아 보건환경연구원에 보낸다. 보건환경연구원은 무취공기제조 장치를 통해 무취공기를 만들어 악취 발생지역의 공기와 희석시킨다. 희석은 무취공기를 10, 30, 100, 300배 등으로 증가시켜 냄새를 맡아 악취 여부를 판정한다. 판정은 보건환경연구원 직원 등 5명으로 구성된 악취판정요원이 맡는다.

병원 입원 40대 숨진채 발견

14일 새벽 6시께 광주시 광산구 A병원에서 입원중인 윤모(47)씨가 병실에서 숨져 있는 것을 간호사가 발견했다. 윤씨는 발열증상과 가슴통증, 두통 등의 증상을 호소하며 지난 9일 병원을 찾았고 입원해 치료를 받아왔다.

윤씨는 당시 CT 촬영과 혈액검사에서 염증수치가 높았지만 특이 증상은 발견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전날 저녁까지도 가슴이 답답하다는 증상을 호소하는 것 외에 별다른 이상 증세가 없었다”는 윤씨 부인 등 유족들의 주장을 고려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하고 사망 경위 등을 조사중이다.

/박기용기자 pboxer@

‘장발장 전과자’ 방지

경미 범죄 심사 처분 완화

경찰청은 최근 4개월간 경미범죄 심사위원회를 열어 303건을 심사한 결과가 가운데 85%인 257건에 대한 처분을 감경했다고 15일 밝혔다.

경미범죄 심사위원회는 경찰서에서 자체 선정한 형사범 등을 대상으로 사실 관계, 피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그 처분을 감경해 주는 제도다.

현재 17개 지방경찰청별로 경찰서 1곳에 경미범죄 심사위원회가 운영되고 있다. 위원회에는 경찰관뿐 아니라 변호사 등 외부 인원이 참여한다. 심사위원회는 전체 심사대상자 303명 가운데 형사입건자 106명 중 98명(93%)의 형사입건을 취소하고 즉결심판을 청구하도록 결정했다.

/연합뉴스

“해병대 사칭 말라”에 주목

○광주의 한 호프집에서 처음 만난 해병대 출신 후배가 “해병대를 사칭하지 말라”고 한데 격분해 주목질을 한 40대 남성이 경찰서엔

○15일 광주경찰청에 따르면 입모(42)씨는 이날 새벽 0시20분 광주시 광산구 우산동 T호프집에서 술을 마시던 배모(24)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한 차례 때렸다는 것.

○해병대 출신인 입씨는 이날 친구들과 군 복무시절에 대해 얘기를 하던 중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해병대 출신 후배인 배씨가 “신배님은 해병대가 아닌 것 같다”고 말하자 주먹을 휘둘렀는데, 경찰에서 “해병대 후배가 뜯김없이 시비를 걸자 화가 났다”고 진술.

/박기용기자 pboxer@kwangju.co.kr



여수에 모인 전국시도교육감

장회국 광주시교육감(왼쪽 왼쪽)과 장만재 전남도교육감(오른쪽) 등 전국의 시도 교육감들이 15일 여수 유캐슬호텔에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들은 이날 협의회에서 누리과교 예산 지원과 지방교육자치 존중 등을 국회와 정부에 요구했다.

<광주시교육청 제공>

‘헬기 추락사고 1년’ 순직 소방관 내일 추모식

광주시 광산구는 오는 17일 오전 8시 광산구 장덕동 성덕중학교 인근 인도에서 지난해 7월 헬기 추락사고로 순직한 소방관 5명에 대한 추모식을 개최한다. 추모식에는 성덕중·고교 학생, 광산구 공무원, 주민 등이 참석하고 순직자를 추모하는 임시

분향소가 운영된다. 광산구는 순직 소방관들의 소속이 강원도소방본부지만 이들의 희생으로 대형 참사를 막은 만큼 추모식을 열어 송고한 정신을 기릴 방침이다. 사고 현장 인근에는 고층 아파트, 초·

중·고교, 학원, 상가, 교회가 밀집해 있어 사고 헬기가 충돌했다면 대형 인명 피해가 날 뻔했다. 지난해 7월 17일 세월호 실종자 수색 임무를 마치고 춘천으로 복귀하던 소방헬기가 광주 도심에 추락, 강원도 소방본부 소속 정성철(52) 소방경, 박인돈(50) 소방위, 안병국(39) 소방장, 신영룡(42) 소방교, 이은교(31) 소방사가 모두 순직했다.

/최승렬기자 srchoi@

아파트 균열·누수 하자보수 손배소 항소심서 2억6000만원 배상 판결

광주 광산 코오롱하늘채 입주민들 일부 승소

아파트를 부실하게 지은 대기업 건설사가 법원 판결로 주민들에게 수억 원대 손해를 배상하게 됐다. 광주시 수완동 코오롱하늘채 아파트 입주민들이 균열, 누수 등 하자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라며 건설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하면서다.

광주고법 민사 1부(부장판사 최수환)는 코오롱하늘채 아파트 입주민 등 177명이 건설사인 코오롱글로벌(주)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아파트 주민들은 지난 2009년 5월 건설사가 설계 도면대로 시공하지 않는다고 하면, 균열과 누수 현상이 발생하는 등 곳곳에 하자가 생겨 생활에 불편을 겪었다며 13억6600만원의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설계도면에 따라 시공해야 할 부분을 시공하지 않거나 부실시공 또는 변경시공을 해 전용·공용부분에 균열·누수 등 하자가 발생했다”면서 “건설사는 아파트 하자 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입주민들은 아파트 분양 당시부터 현재까지 건설사에 대해 지속적으로 하자 보수요구를 하고 있는데도, 건설사가 적극적으로 응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책임 감경이 이뤄져야 한다는 건설사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1심은 건설사에게 8억66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지만 항소심은 건설사에게 2억6000만원을 배상하라는 취지로 판결했다.

1심에서 손해배상 대상이라는 판단을 받았던 하자·보수 항목(111개)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아 배상 규모가 줄었다.

/백희준기자 bhj@kwangju.co.kr

인터넷에서 만나는 광주일보 www.kwangju.co.kr

전원주택 · 펜션 · 찻집 · 연수원 · 요양(병)원 · 식당 **적합**

- 전남 담양군 금성면 대성리 879-4, 산 2-5번지
- 대지 9168평, 건물 882평, 계획관리지역, 제2종 지구단위 계획구역
- 담양댐 하류 바로 옆, 건너편 전원주택단지, 담양리조트/금성 펜션단지 1분거리 금성산성/추월산/강천산/대나무 박물관/메타세쿼이아길 근접
- 현재 박물관, 펜션, 식당, 찻집으로 운영 중 **연 3억 순이익 창출**
- 차후 형질변경으로 공시지가 10억 정도 상승 가능
- 관광특구로 시설 자금 및 모든 업종 개발 가능
- 시세/감평가 - 30억 정도
- 매매 - 22억원(이전비 없음, 법인체 인수)
- 주인직매 H. 010-3605-5000

장/단기 투자 가치! 좋습니다

레스토/레스토랑/카페/커피전문점/호프/PC방 **최적** 재즈바/노래홀/룸소주방/단란주점/7080/당구장

금호동, 근린상가 매매

- 광주광역시 서구 금호동 243-6번지 거북빌딩 7층 전체
- 만호초등학교 건너편/서광병원 맞은편/육교 바로 옆
- 대지권 55평, 건물 79평(실평), 대형 주차장 완비
- 현재 뷔스 Bar 운영중
- 시세/감평가 - 7억원 정도
- 매매 - 5억 5000만원

임대 - 보1억에 월 300만원

■ 주인직매 H. 010-3605-5000